



numbers

vol. 261

싱글(미혼) 라이프

결혼하여 가정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싱글 30% vs 목회자 81%!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대통령 지지도 분석
- ② 부부간 호칭에 대한 인식

[넘버즈 칼럼]

저출산 시대의 한국, 교회는?

2024. 11. 05.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결혼하여 가정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싱글 30% vs 목회자 81%!

청년세대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결혼 적령기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으며, 비혼의 삶을 이어가는 싱글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싱글들은 교회에서 청년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장년부에도 올라가길 꺼린다. 어찌 보면 목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싱글 인구의 증가 추세에 맞서 한국교회도 싱글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번 <넘버즈 261호>는 '싱글 기독교인의 신앙의식과 교회생활 관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싱글들의 관점으로 싱글들의 삶/결혼 인식과 교회생활 등을 살펴보고, 목회자, 비싱글 기독교인의 싱글에 대한 인식도 함께 다룬다.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싱글들의 만족스러운 교회생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싱글라이프

is than 150 million contents
Getty Images Bank. Creative
copyrights in Korea and around
content in Korea, more than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싱글 기독교인의 신앙의식과 교회생활 관련 조사

조사개요

구분	싱글 기독교인	비싱글 기독교인	목회자
조사 대상	전국의 만 30~59세 교회출석자 미혼 남녀	전국의 만 30~59세 교회출석자 기혼 남녀	전국의 담임목사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온라인 조사 (이메일 및 카톡 을 통해 URL발송)
표본 규모	총 600명 (유효 표본)	총 334명 (유효 표본)	총 500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편의추출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편의추출
표본 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4.25\%$	-
자료 처리	-	-	교회 규모별 가중치 적용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4년 5월 17~19일 (총 3일간)	2024년 5월 14~22일 (총 9일간)	2024년 5월 17~20일 (총 4일간)
조사 주최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드림교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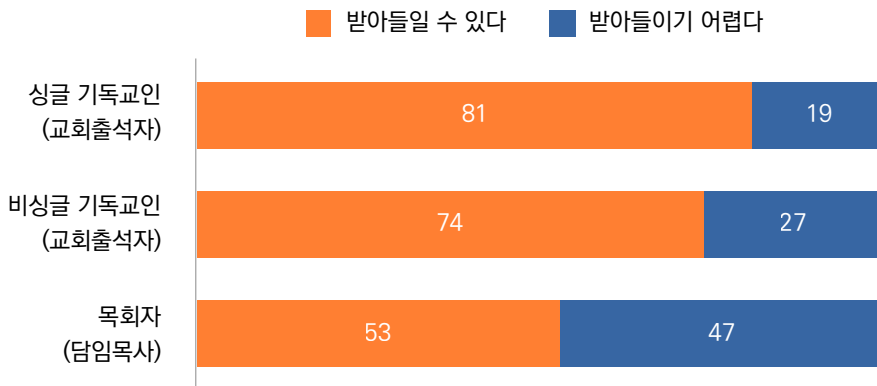
01

[싱글의 결혼 인식]

비혼 수용도 : 싱글 81%, 목회자 53%!

- 싱글 기독교인과 비싱글 기독교인, 목회자들에게 각각 비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싱글의 경우 대부분(81%)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해 비혼 수용도가 가장 높은 반면 목회자들은 53%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가장 보수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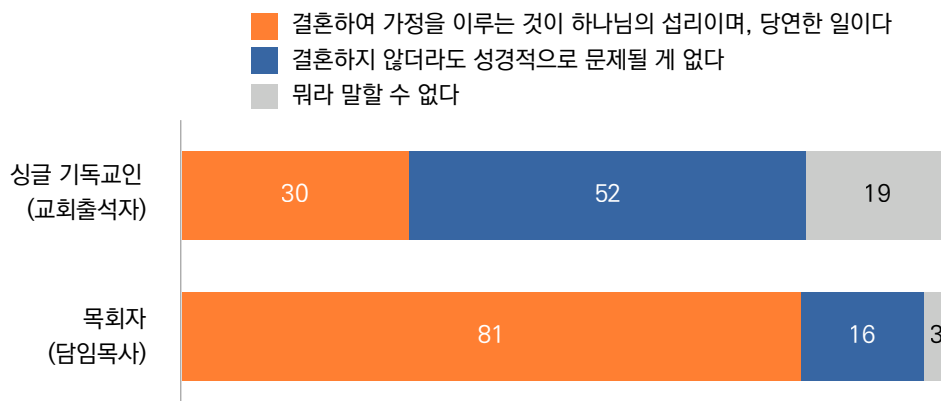
[그림] 비혼에 대한 생각 (%)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싱글 30%, 목회자 81%!

- 성경적 결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당연한 일이다’와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의 두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에 더 가까운 쪽을 선택하도록 했다.
- 목회자들은 81%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입장이었으나, 싱글들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가 절반(52%)을 넘었고, 30%만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응답해 두 그룹 간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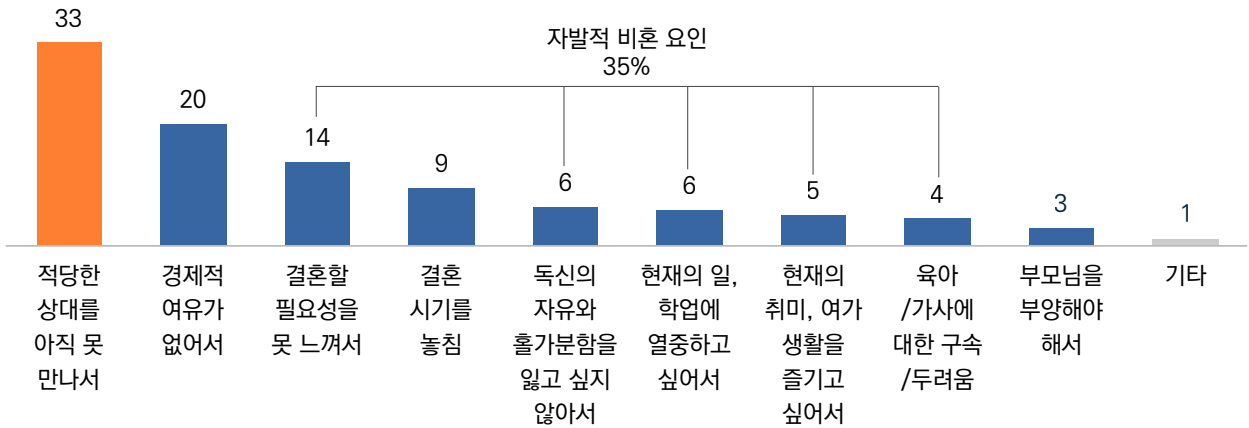
[그림] 성경적 기준 안에서 결혼 (%)



결혼하지 않은 이유, 싱글 3명 중 1명은 결혼 필요성 못 느끼는 등 자발적 요인 때문

- 싱글이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 못 만나서'를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등의 순이었다.
-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비자발적 요인과 자발적 요인으로 나눴을 때 싱글 3명 중 1명(35%)은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독신의 자유/현재의 취미 생활 등을 즐기고 싶어서 등 자발적 요인 때문에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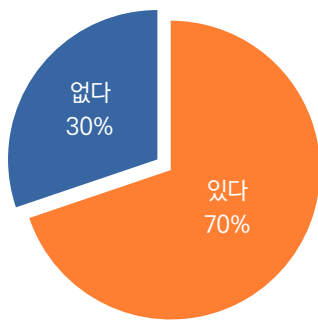
[그림]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 (싱글, 1순위, %)



싱글들의 결혼 의향률, 교회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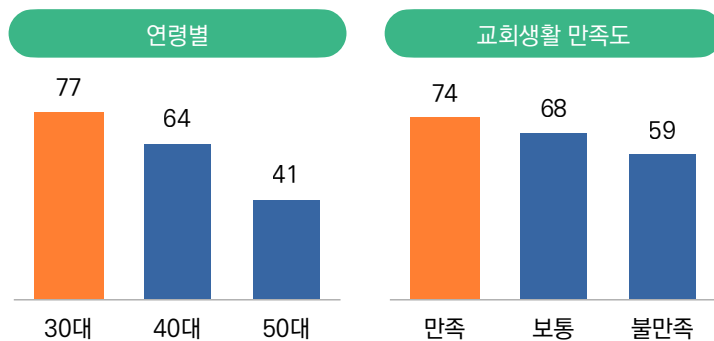
- 이번에는 앞으로 결혼할 의향에 대해 물었더니 싱글의 70%는 결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률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회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향후 결혼 의향* (싱글)



*4점 척도

[그림] 향후 결혼 의향자 특성 (싱글 중 결혼의향 '있다' 응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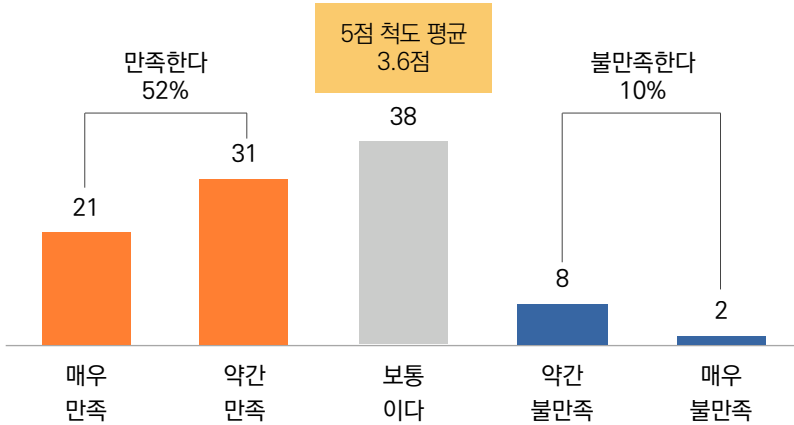
02

[싱글생활 인식]

싱글 절반가량(52%)만 '싱글생활 만족한다'!

- 싱글생활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할까? '만족' 52%, '보통' 38%, '불만족' 10%로 싱글 2명 중 1명가량만 싱글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보면 5점 만점에 평균 3.6점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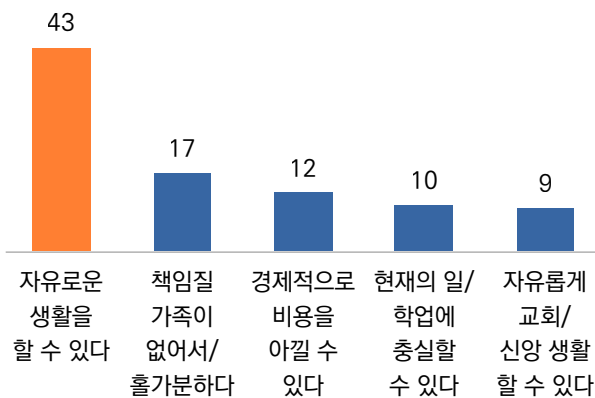
[그림] 싱글생활 만족도 (싱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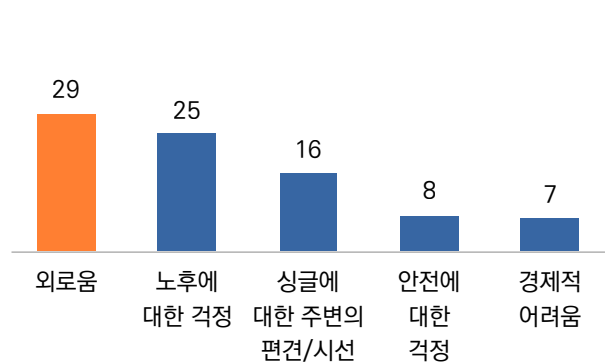
싱글생활 장/단점 1위, 장점 : 자유로운 생활 가능, 단점 : 외로움과 노후 걱정!

- 싱글생활의 장점에 대해 묻은 결과,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43%)'가 가장 큰 장점이었고, 이어 '책임질 가족이 없어서(17%)', '경제적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다(12%)' 등의 순이었다.
- 싱글생활의 단점으로는 '외로움(29%)'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노후에 대한 걱정(25%)', '싱글에 대한 주변의 편견(16%)' 등을 꼽았다.

[그림] 싱글생활 장점 (싱글,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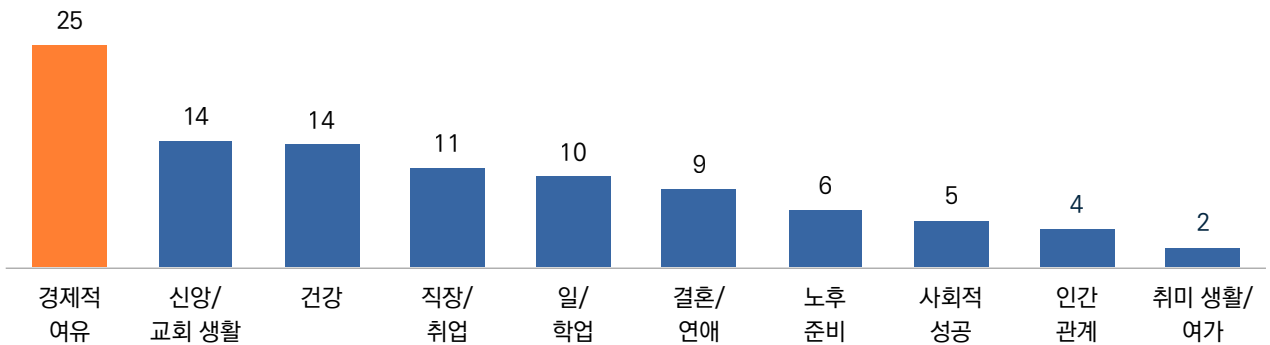
[그림] 싱글생활 단점 (싱글, 상위 5위, %)



싱글들에게는 결혼/연애보다 당장의 경제적 여유가 더 시급!

- 현재 싱글 기독교인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물었다. '경제적 여유'를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건강', '신앙/교회생활', '직장/취업', '일/학업', '결혼/연애' 등의 순이었다. 결혼/연애보다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보다는 경제적 여유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점이 주목된다. 앞서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적당한 상대를 못 만나서'는 사실상 표면적 이유이고, 2위로 응답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실질적으로 싱글들이 삶에서 당면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현재 당면한 중요한 문제 (싱글, 1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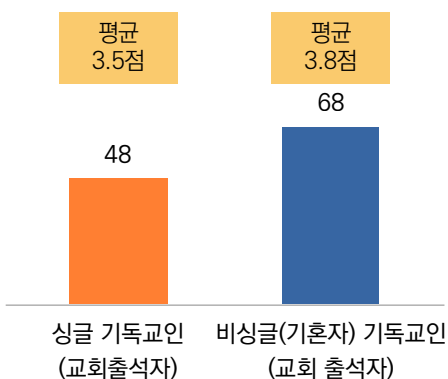


03

[싱글의 교회생활 : 싱글부서] 싱글들의 교회 만족도 비싱글보다 훨씬 낮아!

- 교회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비율'이 싱글 48%, 비싱글은 68%로 싱글들의 교회생활 만족도가 비싱글(기혼자)들의 만족도보다 20%p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그룹에 '자주 참여(68%)'하고, 교회 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62%)' 등 교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싱글의 경우 교회생활 만족도가 전체 평균 대비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교회생활 만족도 ('매우+약간 만족'* 비율, %)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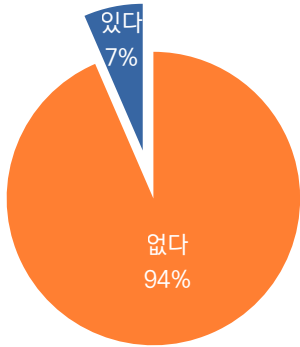
[그림] 응답자 특성별 '싱글'의 교회생활 만족도 (싱글, '매우+약간 만족'* 비율, %)

구 분		만족
소그룹 참여	자주 참여	68 ↑
	가끔 참여	48
	참여 안하는 편	41
	소그룹 없음	29
교회 내 봉사	하고 있다	62
	하고 있지 않다	36

싱글 부서 있는 교회, 10곳 중 1곳에도 못 미쳐

- 출석교회/시무교회에 싱글교인들을 위한 싱글부서가 있는지를 목회자(담임목사) 대상으로 묻은 결과, 7%가 싱글 부서가 있다고 응답해 전체 교회 10곳 중 1곳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출석교회 싱글부서 유무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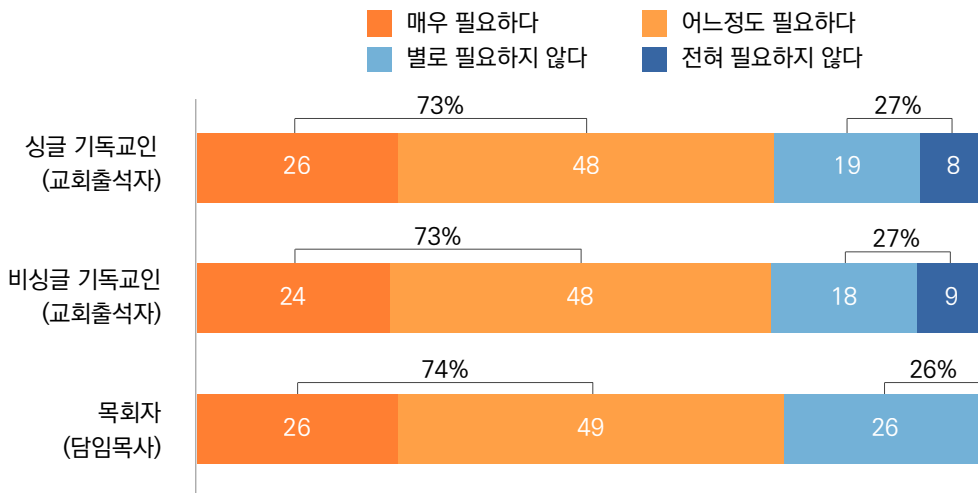
04

[싱글의 교회생활 : 싱글예배]

교회내 싱글예배(공동체) 필요성 인식, 싱글/비싱글/목회자 그룹 모두 70%대로 높아

- 교회 출석자 500명 이상 교회 성도(싱글/비싱글)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교회 내 싱글들을 위한 예배(공동체) 구성 필요성에 대해 묻은 결과, 싱글, 비싱글, 목회자 그룹 모두 70%를 상회하며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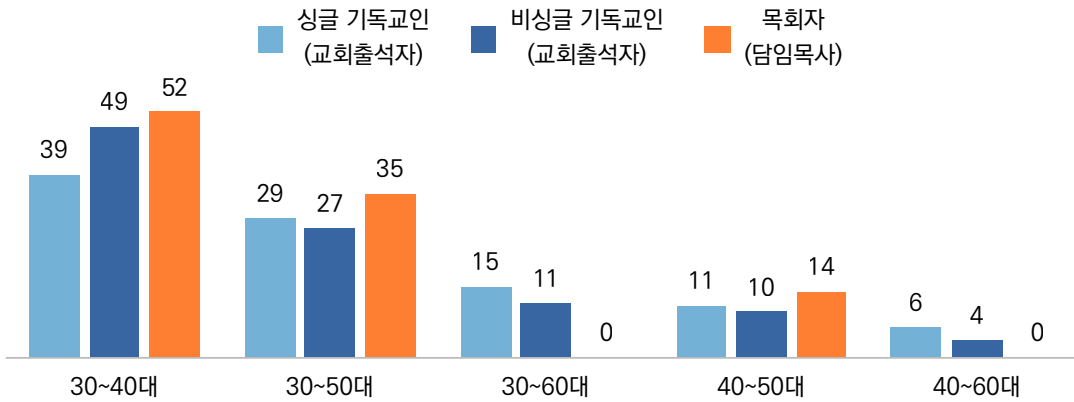
[그림] 교회 내 싱글예배(공동체) 필요성 (교회 출석자 500명 이상 교회 출석/시무하는 자, %)



싱글예배 연령 범위, 대체로 '30~40대' 혹은 '30~50대'로 수렴!

- 싱글예배가 포함해야 할 대상자 연령 범위로는 '30~40대'가 싱글, 비싱글, 목회자 모두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30~50대'로 2순위까지는 동일했다. 3순위는 싱글/비싱글은 '30~60대'인 반면 목회자는 '40~50대'로 응답했다. 대체로 싱글예배 연령 범위를 '30~40대' 혹은 '30~50대'로 수렴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림] 싱글예배(공동체) 연령 범위 (싱글예배 필요성 느끼는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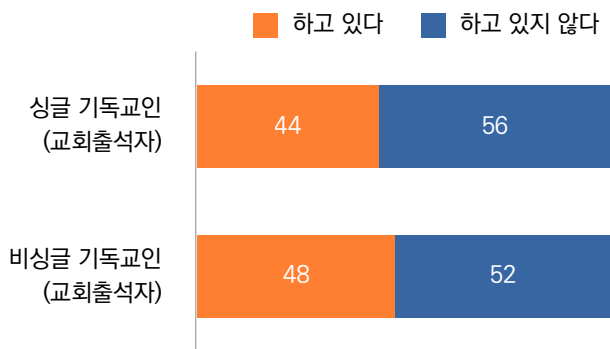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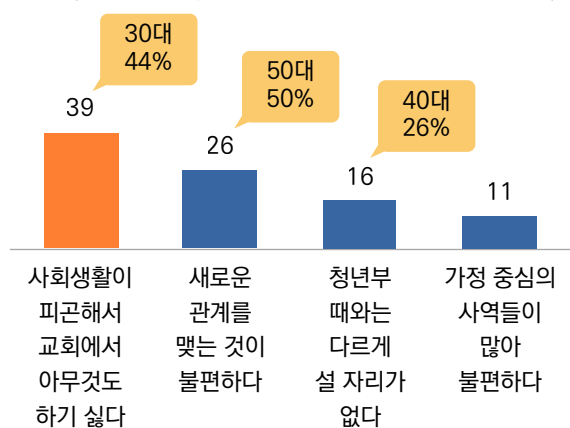
[싱글의 교회생활 : 사역/봉사활동] 교회 내 사역/봉사활동 하지 않는 싱글, 56%!

- 싱글들에게 교회에서 현재 사역 또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하고 있다'는 44%로 비싱글(48%)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게 나타났다. 사역/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사역/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사회생활이 피곤해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39%)'가 가장 높았다.
- 다만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30대는 '사회생활이 피곤해서', 40대는 '청년부 때와는 다르게 설 자리가 없다'를, 50대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목된다.

[그림] 교회 내 사역/봉사활동 여부 (%)



[그림] 사역/봉사활동 하지 않는 이유 (싱글 중 사역/봉사활동 하지 않는 자,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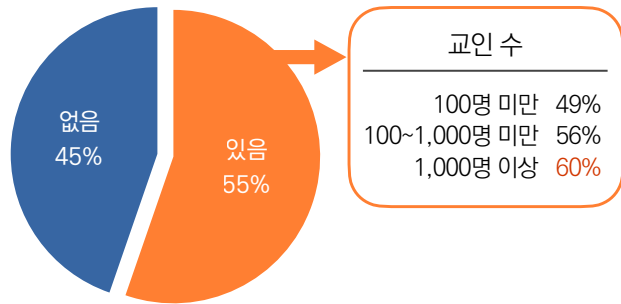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개신교인의 교회 봉사 실태와 인식, 2023.07.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자 중 기혼자 733명, 온라인 조사 2023.06.02.-06.08.)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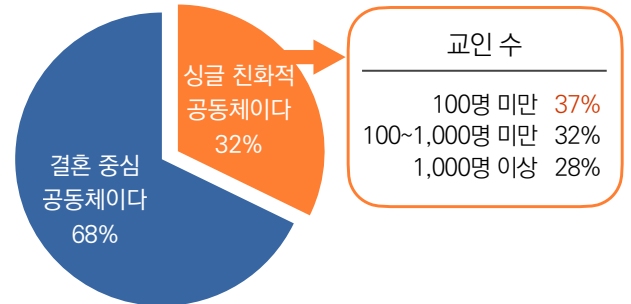
[교회에서 싱글을 대하는 태도] '우리 교회는 싱글에 대한 편견있다', 55%!

- 출석하는 교회의 분위기가 싱글 친화적 혹은 결혼 중심적 공동체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결혼 중심 공동체' 68%, '싱글 친화적 공동체' 32%로 싱글 3명 중 1명 정도가 자신의 교회가 싱글 친화적 공동체라 응답했는데, 교회규모가 작을수록 싱글 친화적 공동체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 '싱글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 '싱글은 눈이 높다' 등의 싱글에 대한 편견이 출석교회 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있음' 55%, '없음' 45%로 교회 내 편견이 있다는 인식이 절반이 넘었다.
- '싱글에 대한 편견 있음' 비율은 교회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교회 내 싱글에 대한 편견* (싱글)



[그림] 싱글/결혼 친화적 공동체 (싱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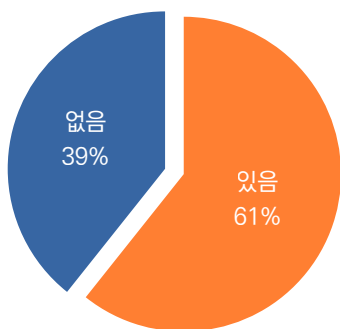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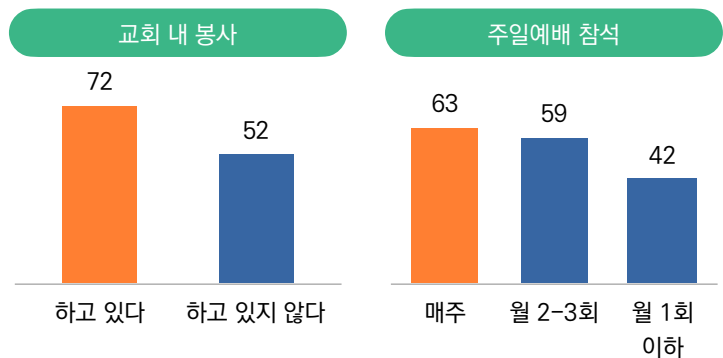
교회활동 참여도 높을수록 교회에서 결혼 권유 받은 경험 높아!

-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나 교인들로부터 결혼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싱글 10명 중 6명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교회 내 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주일예배 참석 빈도가 높은 경우' 등 교회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결혼 권유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교회 내 결혼 권유 받은 경험 (싱글)



[그림] 교회 내 결혼 권유 받은 경험자 특성 (싱글 중 교회 내 결혼 권유 받은 경험 '있다' 응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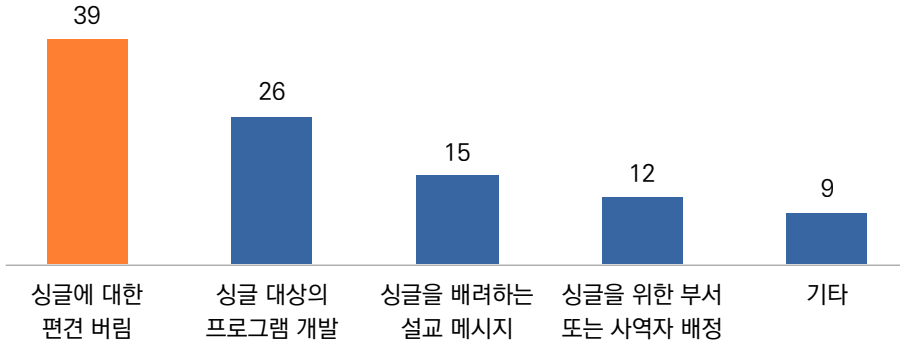
07

[싱글이 교회에 바란다]

교회에 바라는 점, '편견 버림', '싱글 프로그램 개발'이 각각 1,2위!

- 싱글들이 교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싱글에 대한 편견 버림(39%)'을 1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싱글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26%)', '싱글을 배려하는 설교 메시지(15%)' 등의 순이었다.

[그림] 싱글로서 교회에 바라는 점 (싱글, %)



이번호 요약

1. 교회 봉사·소그룹 참여 활발한 싱글일수록 교회 생활 만족도 높다!

- 교회 생활 만족도는 싱글의 경우 '만족' 48%, 비싱글은 68%로 싱글들의 만족도가 기혼자들보다 20%p나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그룹에 자주 참여하고, 교회 내 봉사활동을 하는 등 교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싱글의 경우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 교회 내 싱글 공동체 필요성 인식, 싱글/비싱글/목회자 그룹 모두 70%대로 높아!

- 교회 출석 500명 이상 교회 성도(싱글/비싱글)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교회 내 싱글들을 위한 예배(공동체) 구성 필요성에 대해 묻은 결과, 싱글, 비싱글, 목회자 그룹 모두 70%를 상회하며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칼럼] 우병훈 교수가 들려주는 교회의 슬기로운 싱글 생활 (우병훈 교수,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 ▶ [서적] 어쩌다 싱글 (리나 아부잠라, 좋은씨앗)
- ▶ [서적] 싱글 라이프 (심경미, 아르카)

관련 성경 구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목회 적용점

교회 내에서도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이 늘어나면서 이들 사역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싱글들은 가정 중심적 공동체인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싫다. 싱글들의 삶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또는 사역이 필요한 이유이다.

최근 모델 겸 방송인 이소라가 한 제작발표회에서 '싱글인 게 아쉽거나 후회된 적이 없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결혼해서 친구가 될 수 있는 아이가 있었다면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답변을 한 것을 들었다. 이번 싱글라이프 조사에서도 싱글생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외로움(29%)과 노후 문제(25%)를 각각 1,2위로 꼽아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교회가 싱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점을 발견한다.

우선 교회는 싱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큰 친화성을 발휘해야 한다. 청년부에도 장년부에도 소속되기 애매한 자리에 있는, 싱글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로의 변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회 내 싱글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편견을 버려야 하고, 가정 중심 사역 프로그램뿐 아니라 싱글 대상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교회 안에서 이뤄지는 사역, 봉사활동, 소그룹에 싱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채널 구축도 중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3040세대만을 별도로 떼서 그들만의 장을 만들어 주는 교회가 성공을 보였듯이, 싱글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해 그들이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대통령 지지도 분석
2. 부부간 호칭에 대한 인식

넘버즈 칼럼

저출산 시대의 한국, 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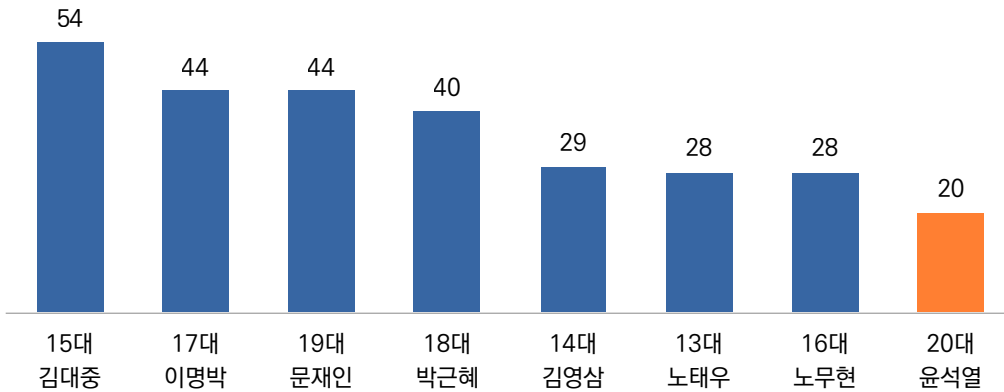


[대통령 지지도 분석]

13~20대 역대 대통령 중 '윤 대통령' 지지도, 임기 반환점 시점에서 가장 최저!

- 지난 주 기준 대통령 지지도(국정 수행 능력 평가)가 드디어 20% 벽이 깨졌다. 한국갤럽에서는 주기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주 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도가 19%까지 떨어진 것이다.
- 이와 관련 13대 노태우 대통령부터 현재 20대 윤석열 대통령까지 8명의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긍정 평가를 임기 반환점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54%로 1위였고, 현 윤석열 대통령은 최저 지지도를 나타냈다.

[그림] 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 ('잘하고 있다'* 응답률, 임기 반환점 기준, %)



※출처 : 한국갤럽, 제525호~569호 2023년 월별/연간 통합 등 해당월 발간 데일리 오피니언 리포트

*역대 대통령 평가는 모두 동일 질문 방식 적용(2점 척도: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2013년 18대까지는 2월, 2017년 19대부터 5월 취임. 이후 재임 연차별 1분기는 그해 4~6월 기준

***윤석열 대통령 3년차 3분기는 10월(3회 평균 총 3,007명) 평균치임

윤 대통령, 전통적인 지지 강세층인 70세 이상층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러!

-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는 2024년 10월 현 시점에서 연령별, 지역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40대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채 10%도 안되는 8%에 불과하였고, 기존의 강세 지지층인 70세 이상층도 부정평가(45%)가 긍정평가(41%)를 앞질렀다.
-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지지도 30%대가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통적인 보수정당 강세지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지지도가 25%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섰다.

[표] 연령별/지역별 현직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2024.10월 기준*, %)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	계
전체		20	70	9	100
연령별	18~29세	15	65	20	100
	30대	13	76	11	100
	40대	8	88	4	100
	50대	16	80	4	100
	60대	29	63	8	100
	70세 이상	41	45	14	100
지역별	서울	21	70	8	100
	인천/경기	17	74	9	100
	강원	19	71	10	100
	대전/세종/충청	26	63	10	100
	광주/전라	9	85	6	100
	대구/경북	25	61	14	100
	부산/울산/경남	25	64	11	100

※출처 : 한국갤럽, 제525호~569호 2023년 월별/연간 통합 등 해당월 발간 데일리 오피니언 리포트

*합계가 100%가 안 맞는 것은 라운딩 에러로 인한

**지역 중 제주는 표본 수가 적어 제외함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외교→경제/민생/물가→김건희 여사 문제로 옮겨가

-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이 직무 수행의 어떤 면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2024년 10월인 현재와 직전 2개년도(2022, 2023년)를 동월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22년에는 '외교(13%)', '경험·자질 부족(13%)'을, 2023년에는 '경제/민생/물가(19%)'를 1순위로 꼽았는데, 2024년 10월 현재는 '김건희 여사 문제(15%)'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표] 현직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평가 이유 (자유응답, 동월 대비, 7순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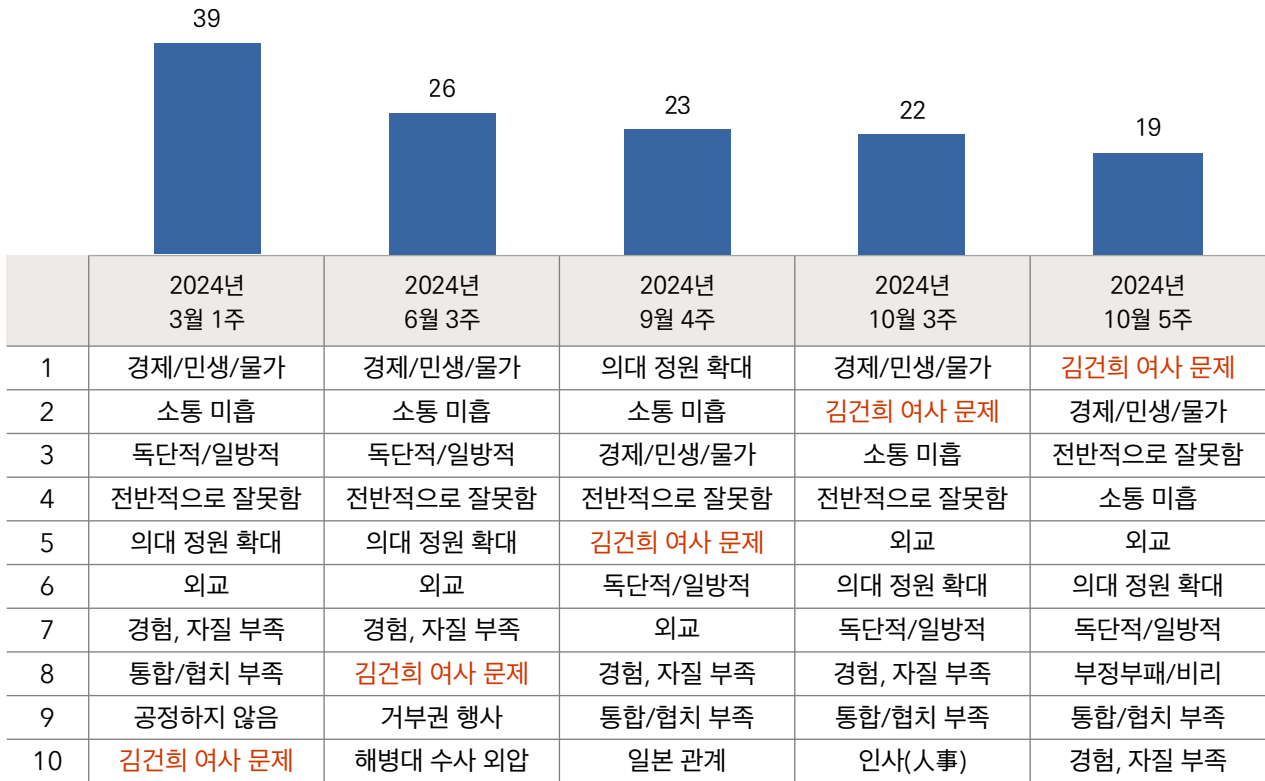
	2022.10	2023.10	2024.10(현재)
1	외교(13%)	경제/민생/물가(19%)	김건희 여사 문제(15%)
2	경험, 자질 부족/무능함(13%)	외교(10%)	경제/민생/물가(14%)
3	경제/민생(10%)	독단적/일방적(9%)	소통 미흡 (9%)
4	전반적으로 잘못함(9%)	소통 미흡(7%)	전반적으로 잘못함(7%)
5	독단적/일방적(5%)	통합 협치 부족(5%)	외교(5%)
6	소통 미흡(5%)	전반적으로 잘못함(4%)	독단적/일방적(5%)
7	발언 부주의(3%)	인사(4%)	의대 정원 확대(3%)

※출처 : 한국갤럽, 제525호~569호 2023년 월별/연간 통합 등 해당월 발간 데일리 오피니언 리포트

김건희 여사 문제 부각될수록 윤 대통령 지지도는 비례하여 하락!

- 앞서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최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는데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 지지도와 김건희 여사 부정평가 순위 간에는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올해 3월 초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 10위에 올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39%였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의 부정평가 순위가 높아짐에 따라 지지도 역시 하락하여 '김건희 여사 문제'가 1위를 기록한 2024년 10월 5주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19%까지 떨어진 것이다.

[그림] 현직 대통령 지지도와 부정평가 이유 (%)



※출처 : 한국갤럽, 제525호~569호 2023년 월별/연간 통합 등 해당월 발간 데일리 오피니언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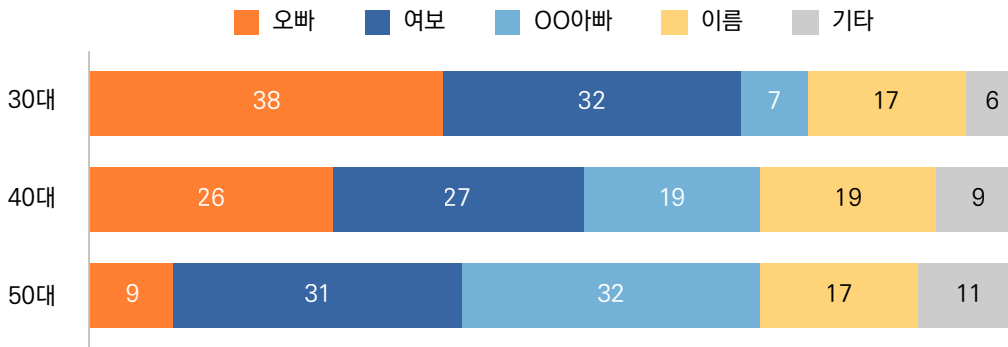


[부부간 호칭에 대한 인식]

남편 부를 때, 30대: 오빠, 40대: 오빠/여보, 50대: 여보/○○아빠

- 부부간 호칭은 가정마다 각기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도 변해왔다. 오늘날, 결혼한 이후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 이런 부부간 호칭에 대한 30~50대 기혼남녀의 인식(조선일보)을 살펴본다.
- 먼저 남편을 부를 때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지 기혼 여성에게 물었더니 30대는 '오빠(38%)'를 가장 많이 부르고 있고, 40대는 '오빠'와 '여보'를 비슷하게, 50대는 '여보'와 '○○아빠'를 비슷하게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빠'로 부르는 경우는 30대 38%, 40대 26%, 50대 9%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남편에 대한 호칭 (30~50대 여성 기혼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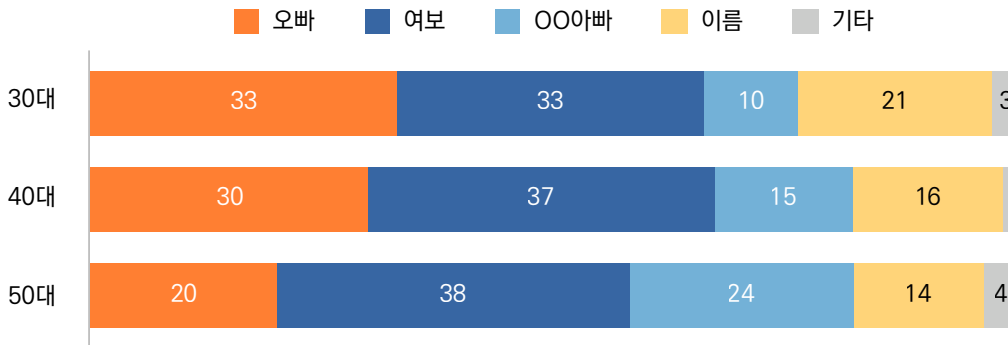


※출처: 조선일보,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오빠" 부르자 남자 스무 명이 돌아왔다' 기사 참조, 2024.10.28.(SM C&C 플랫폼 '탈리언 프로', 30~50대 기혼남녀 1603명, 온라인 조사, 2024.10.19.~20.)

50대 기혼남성, 5명 중 1명은 '오빠' 호칭 선호!

- 이번에는 아내가 어떻게 부를 때 편안한지를 기혼 남성에게 물었다. 그 결과, 30대에서는 '오빠'와 '여보'를 비슷하게 선호했고, 40~50대 연령대에서는 '여보'라는 호칭이 가장 높았다.
- 눈에 띄는 점은 앞서 기혼 여성 중 남편을 오빠라고 부른다는 비율이 50대는 9%로 매우 낮는데 남편들은 50대의 20%가 오빠로 불리는 게 편하다고 응답해 실제 불리는 호칭과 원하는 호칭 간 차이를 보인 것이다.

[그림] 남편이 선호하는 호칭 (30~50대 남성 기혼자)



※출처: 조선일보,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오빠" 부르자 남자 스무 명이 돌아왔다' 기사 참조, 2024.10.28.(SM C&C 플랫폼 '탈리언 프로', 30~50대 기혼남녀 1603명, 온라인 조사, 2024.10.19.~20.)

저출산 시대의 한국, 교회는?

김풍룡 교수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신학과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급속도로 노화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노화를 잘 보여주는 단면은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숫자가 급속도로 감소하여 이제 소멸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1] 한국의 출산율을 보면 이러한 현실을 납득할 수 있다. 1960년대 초 6.0명에 이르던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80년 2.8명으로 줄더니, 2023년에는 0.72명까지 고공낙하하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5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이며,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도 안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저출산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기현상을 이제는 ‘초’자를 붙여 초저출산사회라 부른다. 세계적인 석학인 조앤 윌리엄스(Joan C. Williams)가 한국의 출산율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왜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라고 소스라치게 외칠만한 상황인 것이다. [2]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유독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인들이 유별나게 개인지향적이고 이기적이라서 그런 것일까? 심지어 서구 선진국들의 개인화되고 원자화된 시민들보다 말이다. 그런 방식으로, 즉 개인의 문제로, 특히 ‘자신만 아는 요즘 젊은 것들의 문제’로 치부하며 손쉽게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 젊은 것들’이 기성세대인 우리와 우리가 만들어낸—우리가 비록 막강한 세속 권력과 실행력이 없어 만들어내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순응하고 묵인함으로써 만들어낸—사회의 맹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자크 엘룰(Jacques Ellul)이 말한 것처럼, 현대 문명과 사회의 죄악들은 고도로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신을 순수하거나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사회와 개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3]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공포스럽게 저조한 원인을 특정 세대와 그들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에만 돌릴 순 없다. 이들의 신체와 영혼은 달나라에서 태어나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라는 특정한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생명을 부여받고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들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가치관의 변화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원인과 요인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경쟁사회가 청년들이 졸업과 취업이라는 생애주기의 문턱을 넘어 결혼과 출산으로 나아가는 길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을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 늘면서 안정적인 지위와 연봉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과거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상당폭 증가(9.6%p)하였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무한경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의 MZ세대는 다른 나라의 동일한 세대보다 더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EC%A0%80%EC%9E%A5%EC%86%8C/2168>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00호 \(2024년 10월 5주\)](#)

- 양대 정당 대표 평가, 국정감사

[미국 대통령선거 관련 인식 - 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조사](#)

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조사_2024.10.31.

사회 일반

[8월 출생아 2만명, 두 달째 1천명대 ↑ ..."결혼 증가 영향"](#)

연합뉴스_2024.10.23.

[검사·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60대 이상 여성' 노린다](#)

연합뉴스_2024.10.23.

[마사지, 표본 쿠키... 여론조사 조작 '꾼들의 기법' 보니](#)

조선일보_2024.10.29.

[온라인 성적욕설 피해자 90%는 남성... "남성중심적 문화 원인"](#)

여성신문_2024.10.29.

['246만명'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기초단체는 안산](#)

국민일보_2024.10.25.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오빠!" 부르자 남자 스무 명이 돌아왔다](#)

조선일보_2024.10.31.

[「수저계급론」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4.10.17.

청년 · 청소년

[\[단독\] 예약조차 힘든 청소년 정신과, 4년간 65% ↑ ...강남 3구 최다](#)

한겨레_2024.10.25.

[드라마 정주행? 1분에 끝낸다...숏핑·숏드·숏송 '숏폼' 빠진 MZ](#)

중앙일보_2024.10.30.

경제 · 기업

["회사가 70세까지 있어 달라더라"... 60대 이상 절반이 '일하는 중'](#)

조선일보_2024.10.23.

[\[전국 레이더\] "60세 넘어도 한창"...지자체·기업 정년연장 초미의 관심](#)

연합뉴스_2024.10.30.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20대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비중 역대 최고](#)

연합뉴스_2024.10.27.

[올해 정규직 직장인 평균 월급 380만·비정규직 205만...격차 최대](#)

문화일보_2024.10.23.

[기업 실적 '최악'... 10곳중 4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동아일보_2024.10.24.

[\[속보\] IMF "올해 韓 1인당 소득, 日·대만 여유있게 앞설 것...4만달러 2027년 돌파"](#)

디지털타임스_2024.10.24.

['싸구려 한국차'는 옛말...글로벌 자동차 강국으로 '우뚱'](#)

한국경제_2024.11.2.

[가짜노동 vs 진짜노동 관련 인식 조사](#)

엠드레인 트렌드모니터_2024.10.24.

["승진 안 하고 만년 과장이 꿈"...달라진 Z세대 직장인들, 그 이유는](#)

조선일보_2024.10.29.

['평생 직장'은 옛말...요즘엔 퇴직금 못 받아도 '사표'](#)

한국경제_2024.11.3.

국제 · 환경

[노르웨이, '15세 이상만 SNS 이용' 추진..."알고리즘서 보호"](#)

연합뉴스_2024.10.23.

['남성'인지 '여성'인지 스스로 결정...독일, 파격 제도 시행](#)

한국경제_2024.11.2.

[10년 후 우리 모습, 도교를 산책하면 미리 알 수 있다](#)

조선일보_2024.10.30.

건강

[소득·교육수준 낮을수록 심뇌혈관질환 위험 높아... 건강 불평등 심각](#)

경향신문_2024.10.24.

기독교 · 종교

[비혼 시대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 돼 외롭지 않게](#)

국민일보_2024.10.22.

["트럼프 또 찍어야 하나" 흔들리는 美 기독교인들](#)

국민일보_2024.10.24.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구파발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벤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도안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학교, 수원중앙침례교회, 수원화산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충현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밭제일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시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성서유니온,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한국성서유니온, 한국IFCJ 가정의힘, 한목회, (재)한빛누리,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저캠퍼스, (주)그랑블루, 남촌레저개발(주),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주)시스코프, 신대종합모터스,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치움,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주식회사 치움 (대표 황원덕), 남촌레저개발(주)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국내)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해외) <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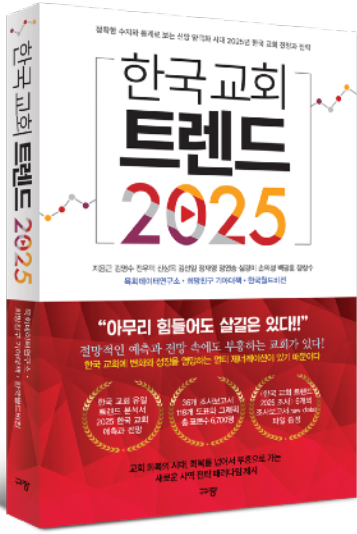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2024 후원 이벤트

2024년 10월 31일~11월 5일까지 후원 이벤트를 통해 저희 연구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

고대원, 권병득, 김경희, 김사무엘, 김성일, 김성재, 김요한, 김용식, 김윤규, 김인규, 김인선, 김인철, 김지훈, 김진훈, 김현모, 김홍삼, 반기민, 백윤정, 서경복, 송우용, 송준영, 신광순, 신현빈, 오창균, 유재윤, 이경만, 이경원, 이기원, 이수규, 이승렬, 이재완, 이정규, 이준영, 이지학, 임양섭, 정승기, 정용수, 지다한, 최선, 표대중, 허남홍, 홍동호, 홍성필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 교회 최초의 트렌드 분석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를 출간한 이후,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

2025년 소그룹 목회(사역) 준비세미나

저희 연구소와 협력기관인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11월 12일(화) 오후 1:30~6:00
- 인원 : 선착순 50명 마감
- 장소 : 서현교회 비전센터 4층 컨퍼런스홀
- 접수 : 온라인(QR or 홈페이지) 및 전화 접수
- 회비 : 50,000원, 교회접수는 전화문의
- 문의 : 070-7578-2957

2025년 Small Group Ministry Preparation Seminar

소그룹 목회(사역) 준비세미나

2024.11.12^화 오후 1시 30분 ~ 6시
서현교회 비전센터 4층 컨퍼런스 홀



온라인접수 QR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